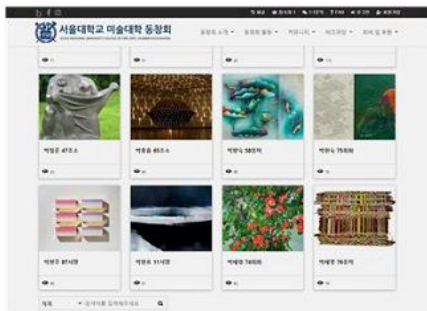


1 본회소식



동문작품 아카이브 운영



본회(회장 권영걸)는 지난해 온라인동문전 'ART ON THE LINE' 개최와 동문작품집 '서울대미술인' 발간에 이어 본회 홈페이지(snuarta.or.kr)에 동문작품 아카이브를 운영한다. 아카이브는 현재 온라인 전 참가동문과 작고회원의 약력 및 작품이 게재 되고

있다. 본회는 향후 점차적으로 게재대상을 전체 동문으로 확대하여 동문들의 시각예술작품·영화·공연·저서 등 창작품은 물론, 운영사업체나 프로젝트 까지 실어 전 동문들을 아우르는 아카이브를 제작할 계획이다. 게재를 희망하는 동문은 본회 메일(snuarta@naver.com)로 창작물 또는 관련 이미지와 약력을 보내면 된다.

모교에 설날맞이 선물



본회는 지난 2월8일 설날을 맞아 모교 경비실 및 미화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정성을 담은 작은 선물을 준비해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했다. 본회는 2019년부터 매년 설날 및 추석에 감사선물을 전하고 있다.

서울대미술인 배부



본회는 지난해 12월1일 동문작품집 '서울대 미술인 1946-2020'을 출간했다. 동문들의 인명록에 가까운 작품집에는 1946 입학년도부터 2020 졸업년도(석박사 포함)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수학 후 활동하고 있는 천명에 달하는 작가들의 작품 이미지와 약력을 수록했으며, 동문작품집으로는 역대 최대 분량이다. 특히 이번 동문작품집은 서울대 미술인의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회화, 조각, 디자인, 건축 등 모든 시각예술분야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작품이미지 또한 신작보다는 대표

작으로, 학번순이 아닌 가나다순으로 수록했다. 문헌참고 및 웹검색 등 6개월에 걸친 방대한 자료조사와 편집, 디자인 작업 끝에 완성된 본 동문작품집은 코로나19로 인해 작품집 발간행사를 생략하고 지난해 12월15일부터 배포를 시작했다.

동문작품집 배부

■ 장소:

본회 선릉오피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11, 아남타워1323(선릉역5번출구)

■ 시간: 화,수,목요일(오전10시-오후5시)

직접수령이 어려우실 경우 택배로 착불배송해 드립니다. 배송을 원하시면 주소를 문자(010-9469-806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임학장에 김성희교수

모교 동양화과 김성희(82회화) 교수가 지난 2월1일 모교 제20대 학장에 취임했다. 특히 이번 김학장의 취임은 모교 75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학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하다. 김학장은 모교 회화과와 대학원 동양화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 관장과 정부미술은행 운영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 규장각 운영위원과 종로구립미술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교무부학장에는 조소과 권대훈(90조소) 교수가, 학생부학장에는 정의철(88산업디자인) 교수가 각각 보임됐다.

인사말



미술대학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입춘에 많은 눈이 와 관악은 설경을 자랑하지만 어느 듯 바람결에 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지난해 코로나19사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상황은 지속되고 있으나 겨울 추위 속에서도 어김없이 봄이 오는 것처럼 올해는 얼어붙었던 일상이 서서히 회복될 것을 기대해봅니다.

1946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로 설립되었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은 75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미술대학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동송동 캠퍼스와 관악캠퍼스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신 동문 여러분들께서는 학창시절의 많은 추억과 함께 모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졸업 이후에도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은 기여를 하시면서 모교에 대한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술대학 동창회는 그동안 전시와 행사, 후원 등 활발한 활동과 함께 지난해에는 온라인 동문전과 1000명에 이르는 <서울대 미술인>을 발간하기도 하는 등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위상을 더 높여 오셨습니다. 열정과 창조정신으로 한국미술을 리더해 오셨을 뿐 아니라, 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적 역할을 해 오신 동문 한분 한분은 후학들의 큰 본보기이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현재 세상이 크게 변화하는 시점인 것을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비단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삶은 벌써부터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되어 왔습니다. 방식의 변화는 체계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고 사고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육의 방식도 현재 큰 변화의 선상에 놓여있으며 근본적으로 교육의 방향에 대해, 대학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다시 숙고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데 최선의 교육을 모색해온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시대를 리더할 수 있는 어떤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묻고 다시 재도약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예술은 이미 확장된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감각이 생동하고 창조성과 소통능력이 요구되는 이 시대 점점 각광받는 분야가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술교육과 미술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의 근본을 항상 생각하며, 변화하는 사회현장 속에서 많은 가능성을 창조해가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술대학 동창회와 동문 여러분들께서는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시점에서 모교가 더욱 발전해갈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미술대학과 동창회가 협력하여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김 성희

학생회장 임기를 마치며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생회장을 지낸 하규원입니다. 임기가 시작하고 코로나19가 터져 아쉬움도 많지만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한해 동안 이전과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내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운영위원회와 집행부가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방식으로 학생들과 소통하였고 찾아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학생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창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창회에서 2020년도에 간식사업 지원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신입생을 포함한 많은 학우분들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생회 행사에 참여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1월에 있었던 새로운 전시 채널에 대한 모색, 게임엔진을 활용한 가상전시 'Pathfinder'에 동창회장님의 축사를 통해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전시가 어려웠던 한

해, 학생들의 고민이 담긴 새로운 시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소'의 오픈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술대학상담소는 많은 학생들의 마음의 지원처입니다. 언제나 힘들면 미소에서 얘기하고 싶을 때 미소는 미술대학 내에서 쉽게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해 동안 필요가 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후원자가 있다는 생각으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대학생 때에는 미래에 대한 크고 작은 불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지나 사회에 계신 선배님들과의 소통하는 자리나, 실제로 필요한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동창회를 통해 생긴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별일 없는지 물어보주신 부회장님, 국장님, 간사 선배님들께 큰 감사를 표하고, 후배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선배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021. 02. 08

2020학년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생회장 하규원

전기학위수여식 스트리밍으로 진행

2021년 서울대학교 제75회 전기 학위수여식이 스트리밍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제74회 전기 학위수여식이 취소되었던데 반해 올해는 스트리밍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학위수여식은 오는 2월 26일 오전10시 서울대학교 대표홈페이지 및 서울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 카운트다운 영상과 본 영상으로 총 40분 내외

소요 예정이다. 사전 카운트다운 영상은 찾아가는 졸업식, 재학생 등 릴레이 응원인사 등의 내용으로 채워지고, 본 영상은 총장 식사, 학사보고, 축사, 졸업생 대표인사, 추억영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한편 모교는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49, 50동 입구 옆 벽면과 74동 2층 오디토리움 앞에 포토존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졸업생들은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미술대학 50동 수위실 및 203호 회의실에서 오전10시부터 오후4시 사이에 학위복을 대여할 수 있다.

산학협력상 제정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가 구성원의 산학협력 의욕을 높이고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상'을 제정하고 지난 1월25일 제1회 시상식을 가졌다. 김성철(공과대학), 정준호(의과대학), 이기원(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가 상을 받았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상'은 서울대가 창출한 기술을 산업부문에 이전하고 사업화해 산업 전반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교원을 포상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부터 크로스리스팅제도 시행

서울대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크로스리스팅'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과별로 유사 과목을 교수 간 협의와 학교 판단을 거쳐 하나의 수업으로 합치고 여러 학과 학생들이 함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대는 교과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초기 시행 단계에선 최대한 보수적으로 크로스리스팅 과목을 선정할 것이고, 향후 필요에 따라 대상 과목 수를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크로스리스팅 과목으로 인정되면 서로 다른 학과 학생들이 같은 수업을 듣고 각각 본인 전공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컴퓨터사이언스, 인공지능(AI) 기반 수업에 대한 크로스리스팅제도 도입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강의를 따로 개설하던 교수끼리도 하나의 수업을 협력해 진행하거나 12학기 수업을 나눠 맡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음주운전 교원 징계제

서울대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의 징계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징계 이후 승급제한기간도 기존보다 6개월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월31일 서울대는 '서울대교원 징계규정'이 지난해 12월 평의원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개정,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회 이상 음주운전(정직에서 파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해임 또는 파면),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해임 또는 파면)에 '파면' 징계를 추가했다.

1학기 대면, 비대면 혼합수업

서울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학기 수업도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1월21일 '2021년 1학기 서울대 수업운영 방식'을 안내했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해 2학기과 동일하게 수업을 A군부터 D군까지 4개 군으로 분류해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혼합할 계획이다. A군은 주로 실험·실습·실기 과목으로 대면수업을 실시한다. B군은 여기에 이론이 더해진 수업으로 대면 수업은 5주 이상, 비대면 수업은 10주 미만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소규모 교과목이 포함된 C군은 대면수업 5주 미만, 비대면 10주 이상으로 비대면 수업의 비중이 B군에 비해 더 높다. D군은 이론 교과목으로 전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다. 다만, 개강 후 2주간 B군·C군·D군은 비대면 수업, A군은 제한적 대면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물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서울대 측은 구성원의 안전과 학생의 수업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업 운영 방식을 다양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공동캠퍼스 입주대학에 선정

서울대(행정·정책대학원)가 세종시 공동캠퍼스에 들어설 6개 대학에 선정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월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에 조성되고 있는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서울대 행정·정책대학원 등 6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의 정원 규모는 2500여명 정도이며, 이중 서울대는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올해 착공하는 임대형 캠퍼스에 입주한다. 행복청은 AI(인공지능), ICT(정보통신기술)와 같은 미래 신산업인 분야에서 입주 대학들이 함께 공동교육·복수학위 등을 통한 융복합 전공을 운영하는 '세종 공유대학(가칭)'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동 캠퍼스 인근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네이버데이터센터와 자율차연구센터 등 300여개의 기업·연구소와 기업지원기관이 위치해 첨단산업 분야의 교육·연구·창업·취업이 순환하는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았었다. 해임은 교원을 강제 퇴직시키고 3년간 임용을 제한하지만, 파면은 5년간 임용을 제한하고 퇴직금이나 연금까지 삭감하는 중징계다. 서울대는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중 교직원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가장 많지만, 내부징계는 가볍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직원 범죄수사개시 통보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직원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국립대 중 서울대(18건)가 가장 많았고 전북대(13건), 경북대·경상대(각각 11건) 순이었다. 하지만 서울대는 감봉(4명), 견책(10명), 경고(4명) 등 가벼운 징계만 내렸다.

캠퍼스정문 보행자공간으로



서울대가 정문 주변 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서울대 정문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문 환경개선사업의 주요 골자는 △정문 주변을 열린 공간으로 전환하고 △정문 옆 자동차 우회도로를 확보하며 △정문 앞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 현재

정문 구조물을 그대로 두고, 주변 환경을 바꿈으로써 서울대 정문의 정체성을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캠퍼스위원회를 통과한 후 오는 3월 착공, 8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섰다. 추진안에 따르면 현재의 보행로가 확대돼 '샤' 정문을 품은 광장이 조성되고, 정문 아래로 차 대신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게 된다. 정문을 관통하던 차도는 전기차 충전소 쪽에서 들어와 정문 옆으로 지나도록 우회도로를 낼 계획이다. 정문 부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혼잡을 빚는 정문 앞 교통 동선도 정리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정문에 가까이 다가가려면 차도로 내려가야 하고 졸업생과 방문객이 차도에서 위태롭게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정문 안팎의 교통흐름도 원활하지 못했다. 왕복 4차선 도로 위에 조형물이 놓여 가용차로는 2차선이었다. 정문 부근에 강남순환도로 나들목이 들어선 후 차량통행과 사고위험은 더욱 높아졌다. 정문 앞에 신탄선과 서부선 등 경전철역이 들어설 것을 감안하면 교통환경을 정비해 둘 필요가 있었다. 서울대는 정문을 중심으로 광장을 조성하고, 정문 옆에 왕복 4차선 도로를 새로 만들어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서울대 진입차로를 2차로 확보하고 동선은 좀더 직선으로 다듬는다. 관악구청 방면에서 진입하는 버스차로도 한 차선 늘린다. 학내 건축으로는 드물게 초기단계부터 학내 의견을 수렴, 지난해 6월 기획처에서 학내 공모전을 열어 새 정문 주변 환경의 콘셉트와 명칭 등의 의견을 받았고, 학사위원회를 통해 학장단 의견을 모은 결과 대부분 정문 환경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서울대는 정문을 시작으로 행정관 앞 잔디광장에 지하주차장을 마련하는 등 문화관과 행정관 주변까지 보행자 중심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4 동창창회소식/공지사항

서울대총동창회소식

조찬포럼 개최(신년인사회 생략)

- 일시 : 2021년 2월18일(목) 오전7시30분
- 장소 : 더플라자호텔(서울시청 앞)
- 강연자 및 주제 : 추후공지
- 참석인원 : 40명 이하(선착순)

2021년도 정기총회 및 제23회 관악대상 시상식

- 일시 : 2021년 3월26일(금) 오후4시(식사제공 없음)
- 장소 :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서울 삼성동 소재, 봉은사 건너편)
- 강연자 및 주제 : 추후공지
- 행사내용 : 정기총회, 관악대상 시상 및 유공동문 표창 등
- 참석범위 : 사전 예약하신 동문 500명 이내
- 참가 신청 기간 : 2021년 2월18일(목)~3월5일(금)

2월 수요특강(SNUA사수회 : 네 번째 수요일 개최)

- 일시 : 2021년 2월24일(수) 오전7시30분
- 장소 :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마포구 도화동, 5호선 공덕역 8번 출구)
- 강사 : 신각수 전 주일대사
- 강의주제 :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일관계 전망
- 참가비 : 무료(김밥 등 간단한 식사 및 도서 제공)

3월 동문 등산대회

- 일시 : 2021년 3월6일(토) 오전10시
- 집합장소 : 과천 대공원역 2번 출구 앞
- 등산코스 : 정문매표소-동물원-숲속저수지-북문입구-동물원-원점회귀
- 소요시간 : 3시간 30분 소요 예정(약 9km)
- 참가인원 : 50명 내외(선착순)
- 참가비 : 2만원(중식 및 선물 제공)

3월 조찬포럼(SNUA이목회 : 두 번째 목요일 개최)

- 일시 : 2021년 3월11일(목) 오전7시30분
- 장소 : 더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 강사 및 주제 : 미정
- 참가비 : 5만원(조찬 및 도서 제공)

관악경제인회(가칭) 회원모집

- 대상 : 국내외에서 한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대·중·소기업인, 벤처창업인, 기업체임원으로 근무하는 동문, 경제분야 학계·언론계 동문
- 목적 : 친목도모, 정보공유의장 마련, 스타트업 선후배 네트워크 연결
- ※ 자세한 행사 안내 및 신청방법은 총동창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 문의 : 02-702-2233

공지사항

정성껏 내주신 회비와 찬조금은 동창회와 동문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연회비	회원	3만원(평생회비30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감사·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찬조금		상시 환영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대동창회)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납부자(2021.1.1-1.31)-가나다순

■ 찬 조 금

- 이순영(84동양) 600,000원

■ 연회비(회원)

- 유형길(58회화) ●최국병(58조소) ●장연택(60조소)

회비를 납부하시면 본회 홈페이지(snuart.or.kr) 아카이브에 회원님의 작품, 저서 등 창작품이미지와 약력을 게시해드립니다. 회비납부 후 본회 메일로 이미지3점/캡션/학력/경력/전시이력/수상 등의 자료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올려드립니다. 기존에 업로드 되어있는 회원님들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드립니다.

인스타그램 계정변경안내

본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이 바뀌었습니다.
@snuartassociation → @snuartalumni
기존계정은 개인계정으로 바뀌었으니 동문들께서는 새로운 공식계정인 @snuartalumni를 팔로우 해주시면 됩니다.

소식지를 휴대폰으로

본회는 매일 온라인소식지 E-NEWS를 발간해 메일로 발송합니다. 휴대폰에 메일어플리케이션(네이버메일, 다음메일 등)을 설치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식지를 통해 전시, 행사나 경조사 등을 알리고 싶으신 동문께서는 매달 25일 이전 동창회메일(snuarta@naver.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문사업체 소개

본회는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하여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동문께서는 동창회메일(snuarta@naver.com)로 성명(학번·학과), 사업체 명칭과 소개의 글, 이미지,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근조기 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 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872-8065)

동창회 SNS 가입안내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올려 동문들에게 알릴 수도 있습니다. 가입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 : 김홍도(00동양)



자문박 미술관 프로젝트

서울 자하문 밖의 종로구 구기동, 부암동, 신영동, 평창동, 홍지동은 한데 아울러 '자문박'으로 일컬어진다. 자문박 동네 일대에는 화가, 조각가, 소설가, 음악가, 건축가, 디자이너 등 예술문화인들만 200여명 가까이 살고 있다.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문학관 등 관련 시설도 70여개에 이른다. 자하문 지척이라 문 안 동네 세상과 가깝지만 문 밖으로만 나서는 서울의 번잡함이 가시고 고요한 여유가 있어 매력있는 동네다. 최근들어 젊은 층의 '문화워킹' 코스로도 인기가 높다. 이 자문박 지역의 미술관과 갤러리, 작가작업실을 네트워크화 해 문화자산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일고 있다. 이른바 '자문박 미술관 프로젝트'다. '문화 예술 콘텐츠'가 주요 산업자원으로 이미 공인된 시대인 만큼 자문박 프로젝트의 성공은 '서울의 문화지도'를 바꾸는 것은 물론 제조업 중심의 산업지형에도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자문박문화포럼의 이순종(70음미/전 모교학장) 이사장은 "평창동 등 자문박 일대에 모두 100개 이상의 미술관, 박물관, 공방 등을 유치해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타운으로 조성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라며 "페인팅 위주 장르를 공예, 연극, 음악 등으로 다양화하고 젊은 작가들을 유치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문박문화포럼(이사장 이순종)과 가나문화재단(이사장 김형국)은 '자문박 미술관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며 가나아트센터 전관에서 자문박 프로젝트 대상 작가군을 소개하는 전시 '자문박 미술관 프로젝트'를 개최했다. Part I(1월22일~2월28일)과 Part II(3월5일~3월28일)으로 나눠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는 각 12명씩 모두 24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작가(유족)가 직접 선정한 작품(작가별 3~5점)과 함께 작가의 화업 전반과 작품 세계를 소개하는 영상 자료와 다양한 출판물 등이 전시된다. Part I에는 최근 별세한 물방울 화가 김창열(48회화) 동문을 비롯해 최종태(54조소), 김봉태(56회화), 윤영로(56회화), 이종상(59회화), 심문섭(61조소) 동문 등이, 3월 열리는 Part II에는 임옥상(68회화), 박영남(69회화), 박항률(70회화), 안규철(73조소), 이수경(78회화) 동문 등이 참여한다.

한편 자생적 예술인 밀집촌인 자문박의 예술적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가나문화재단과 자문박문화포럼, 종로구청(구청장 김영종)이 함께 진행하는 '자문박 미술관 프로젝트'는 중장기 사업으로 작가의 자택을 미술관 또는 자료관으로 공유하고 종로구 구 유지에 한국 근현대 화단을 대표하는 거장들의 미술관을 세우며, 유형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현역 작가의 아틀리에를 미술관 등으로 공개해 문화유산으로 활용하는 3단계의 계획으로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도 '자문박 미술관 프로젝트'는 상향식(Bottom-up)의 문화특화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에 특화지구를 조성할 경우엔 사업 성격을 정한 뒤, 부지나 건물을 마련하고 적합한 인물, 기업을 섭외하는 수순(하향식, Top-down)으로 진행되게 마련이다. 하지만 '자문박 미술관 프로젝트'는 이미 자문박 지역에 자생적으로 모여있는 예술자원을 바탕으로 미술관 등 문화시설 유치를 계획하는 상향식(Bottom-up) 개발사업이다. 이는 예술문화 분야에서는 극히 드문 사례다. 지역 콘텐츠 개발사업의 신모델로 기대가 모아진다.

무엇보다도 '자문박 미술관 프로젝트'는 상향식(Bottom-up)의 문화특화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에 특화지구를 조성할 경우엔 사업 성격을 정한 뒤, 부지나 건물을 마련하고 적합한 인물, 기업을 섭외하는 수순(하향식, Top-down)으로 진행되게 마련이다. 하지만 '자문박 미술관 프로젝트'는 이미 자문박 지역에 자생적으로 모여있는 예술자원을 바탕으로 미술관 등 문화시설 유치를 계획하는 상향식(Bottom-up) 개발사업이다. 이는 예술문화 분야에서는 극히 드문 사례다. 지역 콘텐츠 개발사업의 신모델로 기대가 모아진다.



이러한 자문박 미술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선 한국 미술계 대표 작가들을 기리는 미술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김창열 동문의 서울 평창동 자택(위 사진)이 '김창열기념미술관'으로 탈바꿈해 올해 말 개관하는 것을 시작으로, 원로 조각가 최종태 동문의 '최종태미술관' 건립이 확정되었다. 또한 원로 추상화가 윤영로 동문의 자택(아래 사진)을 개조한 미술관 건립도 추진되고 있다. '번역된 도자기'로 유명한 설치미술가 이수경 동문은 평창동 어린이 놀이터 조성에 참여한다. 안전을 위해 평소 사용하는 도자기가 아닌 플라스틱 등의 재료로 제작될 놀이터는 이르면 오는 10월쯤 완공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 부고기사 김창열(48회화)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1월15일자(현지시간) '물방울 화가로 잘 알려진 한국 추상 미술 거장 김창열 동문의 부고 기사를 실었다. NYT는 기사를 통해 고인의 별세 소식과 함께 그의 삶과 생전 작품세계를 다뤘다. NYT는 고인에 대해 "의미가 담겨 볼록해진(Swollen With Meaning) 물방울을 그린" 화가로 표현하며 "동양 철학과 전쟁 트라우마의 영향을 받은 영롱한 물방울 그림들을 창작해내는데 반세기 동안 헌신해왔다"며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 스타 예술가(art star)였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고인의 물방울 그림에 관해 "세심한 주의가 기울여진 김 화백의 물방울들은 수분의 기운을 머금은 채 캔버스 위에 기적적으로 앉아있거나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처럼 보인다. 빛나면서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생생하게 존재하면서도 항상 사라질 것 같은 찰나에 있다"며 "이 그림들이 김 화백을 당대 가장 유명한 한국 화가로 만들어줬다"고 평가했다. NYT는 고인이 선종과

도교 사상에 조예가 깊었다면서 물방울을 그리는 작업이 "모든 것을 물방울로 용해하고 '무(無)로 되돌려 보내기 위한 행위"라며 "분노도 공포도 '허(虛)로 돌릴 때 평안과 평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생전 발언을 전했다. 신문은 묘한 매력에 풍기는 김화백의 물방울이 순수함과 깨끗함을 뜻하지만, 물방울을 그리는 과정은 그 상징적 무게감 이상으로 그에게 중요했다면서 "나는 셀 수 없이 물방울을 그리면서 끔찍한 기억을 용해하고 지워냈다"는 그의 과거 연합뉴스 인터뷰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신문은 고인이 걸어온 삶의 발자취를 전하며 대학 은사였던 한국 현대미술 거장 김환기, 뉴욕을 주 무대로 활동했던 비디오 아트 선구자 백남준과의 인연 등도 되짚었다. 고인은 92세를 일기로 지난 1월5일 세상을 떠났다. 그는 실재인 듯한 작각을 불러일으키는 영롱한 물방울을 그린 작품으로 대중적인 인기와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한국 현대미술에 큰 획을 그었다. 일제 강점기에 평안남도 맹산에서 태어나 검정고시로 모교에 입학했으나 한국전쟁이 벌어지면서 학업을 중단, 그 이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본격적인 화가의 길을 걸었다. 1960년대 들어서는 세계 무대로 눈을 돌렸으며 동양의 철학과 정신을 함축한 물방울 회화로 세계적인 거장 반열에 올랐다.

무한한 자유를 찾아 장성순(48회화)



한국 추상미술의 지평을 연 1세대 원로작가 장성순 동문 초대전이 지난 1월 5일부터 30일까지 안산시 갤러리스틸에서 열렸다. 한국 현대미술에서의 그의 위상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번 전시에는 30여 점이 출품됐다. 안산에서 자리를 잡고 노후의 창작활동을 이어온 장동문은 2017년 안산시에 207점의 작품을 기증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장동문은 함경남도 함흥 출생으로 1960년대 전후 한국 추상미술의 탄생과 전개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던 작가로 한국 현대미술사 추상작품 분야에서

중요하게 기록되고 있다. 장동문은 한국 현대미술의 출발에서 가장 중요한 '현대미술가협회' 창립멤버로 전위그룹인 '악튀알' 참여, 그리고 파리비엔날레(1961)와 동경비엔날레(1962) 등 국제전에 참가했다. 장동문은 '추상은 무한한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 그 자체'라며 50년 이상 독자적인 추상세계를 구축해 왔고 오랜 시간 추상표현이라는 그릇에 내용적 변화를 담아 순수의 조형언어를 창조하고자 노력했다. 장동문의 작품들은 그만의 내면적 풍경과 그만의 독자적 시선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중첩된 세계를 다양하고 아름다운 정서로 표현해내고 있다. 장동문의 추상은 고요하고 여유로운 한 폭의 산수화처럼 사사화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뤄 아름다운 시의 세계를 만들어내며 자신만의 독특한 직관과 감성을 바탕으로 이념도, 제목도, 테마도 없는 한국적이고 순수한 미술을 창조했다.

경매시장결산 1위 이우환(56회화)



지난해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가장 거래가 뜨거웠던 작가는 이우환 동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미술사가감정협회와 아트프라이스에 따르면 이동문은 2020년 경매시장에서 약 79%의 낙찰률을 기록하며 낙찰총액 약 149억 7천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 쿠사마 야요이(약89억원), 3위 김환기(약57억원) 등을 압도적인 차이로 따돌렸다. 이우환의 작품은 총 228점 출품됐고 이 중 180점이 낙찰됐다. 이동문은 낙찰총액 뿐 아니라 작품별 최고 낙찰가 30순위에 10점을 올려 '대세'임을 입증했다. 지난해 11점을 올렸던 김환기는 올해 2점에 그쳤다. 한국미술사가감정협회 관계자는 "이우

환은 생존 현역작가인데다 2, 3위 작가들에 비해 두배 가까이 많은 출품작 수에도 높은 낙찰률을 기록한 점으로 볼때 시장의 선호도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일본과 파라서울에 작업실을 두고 국경을 넘나들며 작품활동을 하는 이동문은 1936년 경남 함안 출신으로 1956년 모교를 중퇴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1961년 니혼대학 문학부 철학과를 졸업했다. 1969년 미술평론가로 등단했으며, 전위적 현대미술운동인 '모노하(物派)'의 핵심 작가·이론가로 활동했다. 타마미술대 교수, 프랑스 국립미술학교 초빙 교수 등을 지냈다. 1967년 도쿄 사토화랑에서 첫 개인전 이후 평면과 입체, 설치를 넘나들며 전 세계 주요 미술관·갤러리에서 대규모 전시를 열었다. 일본 나오히메에는 이우환미술관이, 부산시립미술관에는 '이우환 공간'이 있다. 철학적 사유와 문학적 감성의 글 쓰기로도 잘 알려진 그는 독자적 예술론과 시, 에세이 등도 발표했다.

나는 나무다 임옥상(68회화)



1세대 민중미술가 임옥상 동문이 나무를 통한 깊은 성찰을 보여주는 '나는 나무다'전을 서울 인사동 갤러리나우에서 2월 2일부터 28일까지 연다. 임동문은 흙, 종이, 쇠, 유화물감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또 동시에 페인팅, 조각, 퍼포먼스, 설치를 넘나드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미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특히 대중과의 소통을 도모하며 실천하는 문화 전달자로서 오랫동안의 역할을 해온 그는 이제 나무를 통한 깊은 성찰의 시각의 궤적을 보여준다. 나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거치면서 이어지는 죽음과 소생의 반복은 만물이 흙에서 생명의 움을 틔우고 흙으로 되돌아가는 흙의 모습과 그 궤를 같이한다. 흙 위에 나무가 서 있듯이 그의 캔버스 위에 나무가 서 있다. 오래 전부터 사용했던 흙을 두툼하게 캔버스에 올린 후 일필휘지의 음각 드로잉과 채색을 통해 완성된다. 문명비판적, 정치고발

적, 사회참여적인 민중미술가로서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숙명을 지닌 한 예술가의 모습으로만 서 있음을 볼 수 있는 전시이다. 임동문의 나무와 매화는 살아있는 생명, 날것의 숨결 그 자체이다. 무(無)로부터 어떤 것이 만들어질 때의 순간의 힘, 순간의 숨결이 기운생동의 강인하고 거친 숨결을 거쳐 일어난 가녀린 매화로 피어난다. 봄의 에너지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이다. 임동문은 모교 회화과와 동대학원 석사졸업 후 프랑스 앙굴렘 미술학교를 졸업했으며, 현재까지 개인전 20여회, 단체전 180여회를 가졌다.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 주요 신문에 그림을 연재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양세기의 달빛', '임옥상의 붓과 말', '벽 없는 미술관', '누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지 않으랴'가 있다. 동아플레이어워드 : 무대디자인, 토탈아트상, 가나아트상 등을 수상했고, 광주대학교와 전주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사단법인 흙과 도시 부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문화자연연구소 대표, 평창문화포럼 이사, 종로구청공간디자인위원을 겸하고 있다. '모든 이들이 예술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을 표어로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어린이뮤지컬 고추장떡볶이 김민기(69회화)



매해 아이들의 겨울방학을 책임진 학전 스테디셀러, 어린이 뮤지컬 '고추장 떡볶이'가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김민기 동문의 학전블루소극장에 오른다. 고추장 떡볶이는 부모의 손길 밖은 위험하다고 여기는 엄마와 무엇이든 혼자 해내고 싶은 천방지축 비룡, 백호 형제의 일상을 담아낸 어린이 뮤지컬이며 독일 그립스 극단의 Spaghetti mit Ketchup 원작을 학전 대표 김동문이 번안, 연출했다. 엄마가 급히 병원에 실려간 어느 날, 엄마의 도움 없이 조금씩 성장하는 형제의 모습을 그려냈다. 통조림 하나를 여

는 것도 서툰 형제가 떡볶이를 만들어내는 모습은, 하루하루 성장해나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비추어냈다. 고추장 떡볶이는 우리 주변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유쾌한 에피소드 형식으로 그려내어 따뜻한 가족애를 전달하는 극이다. 2008년 초연을 시작으로 관객과 처음 만난 후 그 해 월간 한국연극 선정 베스트 7에 선정되었으며, 대한민국연극대상의 아동청소년연극상, 서울어린이연극상의 우수작품상과 연기상을 수상하였다. 객석까지 풍겨오는 달콤한 떡볶이 냄새는 무대와 관객의 경계를 허물며 더욱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한다. 학전은 아이들을 위한 공연인 만큼 더욱더 강화된 방역으로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 힘쓰고 있다. 고추장 떡볶이는 손현정, 이상근, 안소연, 박한돌, 박찬호가 출연하고, 이동호가 연주를 맡았다. 학전 홈페이지, 인터파크 티켓, 네이버 예약에서 예매가능하다.

제자들과 함께한 옷칠전 나성숙(71옹마)



옷칠작가 나성숙(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과 명예교수)의 개인전 '나성숙 옷칠전'이 지난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서울 장충동 디자인갤러리 모이소에서 열린 이번 전시에서는 북촌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통을 현대 관점에서 재해석한 작가의 시리즈가 선보였다. 한국 기와지붕의 아름다움과 모란의 형상 등을 나전 기법과 삼베, 금박, 진주 등 여러 재료

를 사용하여 표현한 평면 작품 30여점과 전통 혼수함이 전시됐다. 옷나무에서 채취하는 옷은 전통적으로 가구 등을 칠하는데 사용돼 온 천연도로, 시각디자인 전공 교수였던 나동문은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옷칠을 배우고 전통을 재해석하는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전통이 유리상자 속에서 거룩하게 존속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20년째 일반인들에게 옷칠을 가르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나동문이 운영하는 '행복이 가득한 교실' 1~19기 수강생 39명의 전시 '서로재이야기'가 함께 열렸다. 한편 나동문은 서울산업대학교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한국여성디자인포럼 및 한국여성시각디자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인천문화재단 새로운 토대 최병국(77회화)



인천문화재단 대표 취임 2주년이 된 최병국 동문이 인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 한해 인천 문화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밝혔다. 최동문은 "SNS가 널리 통용되는 시대적 추세를 따라 새롭게 시도해야 하는 것들과 꾸준히 지켜나가야 할 것의 균형을 잡고 짜임새있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열린 도시이자 남북 접경지역인 인

천의 문화자원을 평화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지역의 문화자원을 예술인들의 활동에 연계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동문은 "지난 2년간 재단을 둘러싼 여러 가지 비판과 논의와 내부적인 고민 등이 많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지역 안팎의 기대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잘하라는 또 잘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인천문화재단의 새로운 5년, 새로운 10년의 토대를 닦으려 합니다"며 지난해 제기된 비판과 충언 등을 양분 삼아 2021년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된 조직을 이끌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홍천미협 회장취임 정혜레나(83조소)



홍천에 거주하는 전문 미술인을 회원으로 초대해 작품활동과 전시를 통해

홍천미협의 위상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완공단계에 있는 수장고를 활용해 설치미술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시장은 물론, 시장 안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그림을 그리고 스케치하며 홍천군민과 예술인이 함께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또한 향후에는 문화재단과 협의를 거쳐 미술은행을 운영해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구매 또는 임대를 통해 전시를 하고 작품을 보급시켜 홍천미협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정동문은 19회의 개인전과 단체전 160여회에 참여했으며 감리교역사박물관 최용신상, 동부연회 순교자상, 그 외 십자고상 등 다수의 작품을 제작했다. 홍천군 경관심의위원, 강원도기독교미술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강원도 조형물심사위원이기도 하다.

국립춘천박물관장 취임 김율림(86서양)



국립춘천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김율림 동문이 국립춘천박물관장에 승진 발령됐다. 김동문은 "전임 관장의 뒤를 이어 국립춘천박물관이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박물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후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사학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를 거쳐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와 학

예연구관 등을 지냈으며 2019년 1월부터 국립춘천박물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해 왔다. 또한 미술사연구회, 한국고미술연구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학부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동양미술사를 공부한 김동문이 학예사로 박물관에 발을 디디게 된 이유는 자기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좀더 많은 사람과 나누는 데 더없이 좋은 직업이 학예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한다. 한편 춘천시 우석로에 위치한 국립춘천박물관은 2002년 개관했으며 강원지역 문화의 원형과 특성을 찾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연구와 전시, 교육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조선구마사 출연 감우성(89동양)



감성 멜로부터 선 굵은 작품에 이르기까지 독보적인 연기 세계를 구축해온 감우성 동문이 새 드라마 '조선구마사'에서 태종을 연기한다. '조선구마사'는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악령과 백성을 지키기 위해 이에 맞서는 인간들의 혈투를 그린다. '옥룡이 나르샤' 등 액션 사극에서 탁월한 연출력을 발휘한 신경수 감독이 메가폰을 들어 한국형 액소시즘 판타지 사극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감동문은 조선

땅에 부활한 악령을 봉인하기 위해 다시 칼을 잡은 태종 역할을 맡았다. 감동문은 "뛰어난 제작진, 훌륭한 배우들과 함께 작업한다는 건 언제나 설레고 기쁜 일이다. 10년 만에 사극으로 인사드리게 돼 감회가 더욱 새롭다"며 "시청자 여러분께 재미와 활력을 선사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SBS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는 오는 3월 첫 방송 예정이다. 한편 감동문은 '결혼은 미친 짓이다', '알 포인트', '왕의 남자' 등의 작품에 출연하여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제43회 대중상영화제 남우주연상, 제27회 청룡영화상 베스트커플상, 2018 SBS연기대상 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국제청 명예홍보위원,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장애청소년 온라인미술전 김선아(89서양)



한양미술+디자인교육센터장 김선아 동문이 지난 1월 5일 서울시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사업 장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시회 '나는 태양에게 다시 인사하겠다'를 열었다. 전시회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이 제작한 1000여 점의 작품은 '3D 쇼케이스 전시'와 '온라인 롤플레이팅 전시'의 2가지 방법으로 구현됐다. '3D 쇼케이스 전시'는 교내 박물관에 설치한 전시를 그대로 옮겨 놓아 실제 전시장

분위기를 살피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온라인 롤플레이팅 전시'는 가상공간 속에서 같은 시간에 접속한 사람들이 함께 작품을 감상하며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김동문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창을 열어 세상을 향해 예술적 창조의 생명력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는 온라인 전시 경험을 통해서 미술 분야 전문가로서의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온라인 전시회는 오픈런(공연이 끝나는 날짜를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양미술+디자인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람할 수 있다. 한편 김동문은 서울시 미술영재교육 지원사업 장학생 100명과 함께 지난 1월 24일까지 서울시 성동구 소재의 공장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디자인콜라보 패션마스크 한샘마(89서양)



아트디렉터 한샘마 동문이 KOTRA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디자인콜라보 패션마스크 프로젝트'는 지난 1월말까지 뉴욕에서 바이어 상담 등을 통해 본격 판매했다. 한동문은 KOTRA와 함께 디자인 전문성을 보유한 후원표, 빠키, 쿤, 이동민, 아트놈 등 국내 유명 아티스트 12명을 섭외했다. 이어 지난해 12월말 국내 마스크 생산기업 여덟 곳에 이들과 '아트콜라보'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했다. 8개 기업이 선보인 31개의 아트콜라보 마스크 제품이 지난 1월초 뉴욕으로 보내졌다. 패션마스크 판매는 KOTRA가 앞장섰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KOTRA 북미지역본부 직원들이 현지 바이어 상담과 판매에 앞장섰다. KOTRA는 뉴욕 도심 한복판에 팝업스토어 매장을 마련하고 마스크를 실은 패션트럭도 꾸며 많은 관심을 끌며 지난 1월31일까지 바이어 상담 및 판매를 했다. 판매된 마스크 금액 중 일부는 뉴욕 저소득층 학교에 기부할 예정이다. 뉴욕뿐 아니라 미국 다른 지역과 유럽 현지무역관을 통한 화상 수출상담회도 열었다. 한동문 베스트셀러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작가이자 미술전문MC로 유명하다.

넷플릭스영화 승리호 조성희(97산디)



영화감독 조성희 동문의 넷플릭스 영화 승리호가 지난 2월5일 공개됐다. 승리호는 2092년, 우주쓰레기 청소선 승리호의 선원들이 대량살상무기로 알려진 인간형 로봇 도도시를 발견한 후 위험한 거래에 뛰어드는 이야기다. 한국 영화 최초 우주 SF 블록버스터라는 점으로 크게 주목을 받은 승리호는 1000여명의 VFX 전문가가 참여해 현실감 넘치는 우주를 구현했으며, 한국 기술력의 정수가를 전 세계에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한 개성 만점 캐릭터의 탄생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할리우드의 전유물이었던 우주 SF 장르와 한국인의 따스한 정, 재치 등 한국적

정서를 결합시켜 독특한 이야기와 캐릭터를 완성했다. '늑대소년' 이후 조성희 감독과 8년 만에 만나는 송중기, 믿고 보는 배우 김태리, 진선규, 유해진 그리고 할리우드 배우 리처드 아미티지까지 자신의 캐릭터에 완벽하게 몰입한 각 배우들의 연기도 관전 포인트다. 특히 승리호의 선원들로 활약한 네 배우는 환상의 팀워크와 케미스트리를 선보이며 찰떡 호흡을 완성했다. 조동문은 "촬영 현장에서 배우들끼리 너무 친했고 캐릭터와 호흡에 관해 서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고 언급하며 "승리호 선원들의 긴밀한 소통 덕에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훈훈하고도 치열했던 현장을 회상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조동문은 2009년 영화 남매의 집 연출로 데뷔했으며 제12회 미장센 단편영화제 대표집행위원을 역임했다. 또한 제49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신인감독상, 제4회 올해의 영화상 몽블랑발견상, 제10회 전주국제영화제 최우수작품상을 받았다.

타로와인바 서랍 정예술(10동양)



정예술 동문의 '서랍'은 정통파스타와 와인을 즐기며 타로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2018년 겨울에 오픈했다. 취미 삼아 공부한 타로가 생업의 일부가 됐다는 정동문은 처음부터 레스토랑을 운영할 생각은 아니었다. 원래는 동문 친구들과 소자본 창업을 준비하며 사무실 겸 쇼룸으로 쓰려고 했는데, 창립멤버들이 각자 새로운 진로를 찾아 흩어지면서 지금의 서랍이 됐다. 현재 일부 공간은 작업실로 만들어 동문들과 같이 쓰고 있다. 정동문은 100여개의 와인을 직접 시음한 후 30여가지를 추려서 선보이고 있다. 서랍의 메뉴개발에는 고민정(10동양) 동문의 도움도 컸다. 서랍의 시

그니처 메뉴 '양송이 품풍풍'이 그중 하나다. 올리브오일에 고기소를 꼭 채운 양송이를 올린 스페인식 냄비요리이다. 또 다른 대표메뉴 '바질페스토 파스타'는 이탈리아 요리학교 '알마'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정동문의 사촌동생이 개발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함께하고 있다. '서랍 속 까르보나라', '트리플 머쉬룸 파워', '치즈범벅 시금치 에그팟', '보들보들 감자 그라탕' 등 식사 겸 안주 메뉴와 와인에 곁들여 먹는 치즈모듬 및 디저트류도 준비돼 있다. 서울대입구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총 15석 규모의 서랍은 코로나19로 밤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되면서 완전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저녁에 하루 4팀까지만 받는 대신 1인 손님 대상으로 낮시간 영업을 신설했다. 서랍은 관악아트워크 예술공간으로 선정됐으며, 동양화 동문그룹 '오색빛담'의 원데이클래스와 동문 연극단 '극단적극단'의 낭독극판이 서랍에서 열리기도 했다.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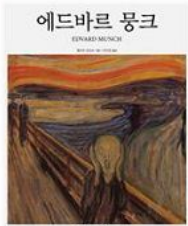


체현의 미학 로고시즘 조형예술의 지평

오의석(74조소) 저 / 한국학술정보 발행

말씀이 형상으로 체현된 로고시즘 미술은 기독교 미술의 본질이며 기독교 문화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독교 미술문화의 정체성을 적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로고시즘 미술은 서구의 미술에서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현대 미술의 현장 속에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들로 체현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로 인해서 한국 현대의 기독교 미술을 하나의 종교적 미술이라는 범주에 국한하지 않고 로고스의 다양한 체현 가능체로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며 로고시즘을 현대미술의 현장에 소통과 변혁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연구의 지평을 확대해 가고자 한다. 조각가이자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인 오동문은 모교 조소과와 동 대학원 졸업, 합동신학 대학원을 수료했으며,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미국 CALVIN COLLEGE,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연구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대학장, 디자인대학원장을 역임하였다.



에드바르 뭉크

한만수(반이정/석98서양) 옮김

올리히 비쇼프마로니에 저 / 북스 발행

다리 위에 선 머리털이 없는 마치 유령과 같은 형체, 그리고 그의 위로 주황빛으로 물든 하늘의 색. 두 손은 귀까지 치켜들고 입은 울부짖는 듯 크게 벌리고 있는 모습이다. 작품 [절규]의 에드바르 뭉크(1863-1944)는 이 시

대의 '모나리자'를 창조했다. 상징적인 이 인물의 비명은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켰다. 그 메아리는 앤디 워홀, 재스퍼 존스, 마르틴 키펜베르거, 마를렌 뒤마, 트레이시 에민의 작품에도 울려 퍼진다. 이 책은 뭉크의 사 이코드라마(심리극)에 대한 뛰어난 능력을 소개한다. 풍부한 삽화를 통해 관계와 감정에 대한 작가의 반응을 보여주는, 강렬한 색감과 더불어 어두우며 심오하게 현대적인 형상을 함께 살펴본다. 작가 본인이 '자유로운 고백'의 수단으로 여긴 이러한 설득력을 가진 이미지들은 오늘날 모더니즘의 베틀 끝에 마치 자석처럼 붙은 채로 남아 있다.



Into the Clouds: New Media Art 2021

김리진(01조소) 저 / CICA Press 발행

CICA Press는 '젊은' 문화 창작가의 관점에서 아트와 문화 전반의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프린트 미디어이다. "Into the Clouds: New Media Art 2021 (구름속으로: 뉴 미디어 아트 2021)"는 2020 CICA 뉴 미디어 아트 컨퍼런스, 아트 텔레포티드 뉴욕 2021, 크라우드: 제 6회 뉴미디어아트 국제전에 참여한 65인의 국내외 뉴미디어 아티스트들을 소개한

다. 저자 김리진 동문은 아트디렉터이자 아티스트로 뉴미디어아트와 시각문화 연구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모교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원에서 뉴미디어와 조소를 공부하였다. 이후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에서 Media, Art, and Text 전공으로 박사를 취득하였다. 2014년부터 CICA미술관에서 아트디렉터로 근무하면서, CICA 뉴미디어아트 출판 및 국제전, 아트엘로북,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 등과 같은 다양한 실험 출판 및 국제전을 기획해 왔다. 상명대와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에서 미술 및 연합과목들을 가르쳤다. 현재 김포산업진흥원 대표, 산업혁신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전시

성명(가나다순)	전시명(개인전)	전시기간(1.1-31)	전시장소
국동완(00디자인)	I promise I stay	01.16 ~ 02.06	피비갤러리
강이연(02서양)	UNIVERSE_WHANKI 1-I-21 LOTTE MEDIA PROJECT展	01.02 ~ 02.15	아트홀(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6층)
권기범(91동양)	모호한 형상의 구축	01.09 ~ 01.15	공간:일리
김방주(06동양)	You Can't Put Out This Fire	01.08 ~ 01.24	인천아트플랫폼 창고갤러리
나성숙(71응미)	나성숙 옷칠전	01.15 ~ 01.24	디자인갤러리 모이소
류안영(97디자인)	전통적 서정과 그래픽 표현	01.23 ~ 01.29	디오티미술관
박주애(주아아/11동양)	발이 없는 저격수	01.09 ~ 01.22	0 Gallery
박주영(07동양)	wi_ow	01.04 ~ 04.05	탐앤탐스 역삼2호점
신경아(96서양)	기다리며 익어가다	01.16 ~ 03.31	공부차 청담 갤러리
윤정미(88서양)	Pink&Blue Project III	01.02 ~ 01.31	291포토그랩스
이경아(84동양)	Journey	01.04 ~ 04.19	Tremont Dentalcare Bldg. 635 Tremont St, Boston
장성순(48회화)	추상, 그 집념의 회화 세계	01.05 ~ 01.31	갤러리스틸
정상곤(83회화)	정 상 곤 풍경그림展	01.05 ~ 01.24	더플렉스,더플로우



2021 제1회 스페이스컬 신진작가 공모전

- ▶접수기간: 2021.2.19.~3.12.
 - ▶지원사항: 개인전 지원 등
 - ▶지원자격: 만33세미만의 예술가(학부재학생 지원불가)
 - ▶제출서류: 공모전지원서,개인전전시계획서,포트폴리오
- 자세한 내용은 www.spacekeyeol.com 참고



2021 전국청년작가 미술공모전

- ▶접수: 2021.2.15.~3.15
 - ▶시상: 대상 2천만원 및 개인전지원 등
 - ▶자격: 만 28세~만45세 이하 시각예술가
 - ▶출품작: 평면50~100호 등 국내외 미수상작
- 자세한 내용은 www.namdocf.or.kr 참고